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2016

08

제349호

“나는야 흙에 살리라~”
군포시평생학습원이 운영한 ‘군포생태농부학교’ 졸업생들
4050세대에게 귀농귀촌은 또 하나의 도전이자 목표다



대야동 블루베리농장에 모인 군포생태농부학교 1기 수료생들

02 행복한 군포

어린이 위생과 영양을 위한 최고의 서포터즈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군포시 어린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들 알아보자.



08 군포 삼매경

얼대? 그게 빛이 증현디!
한여름밤의 꿀 같은 군포시 더위 탈출 명소

+
끈적이는 열기로 뒤척이는 여름밤, 짜증과 불면을 날려버릴 수 있는 군포시의 더위 탈출 명소를 소개한다.



10 반갑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4050들의 유쾌한 도전
군포시평생학습원 ‘군포생태농부학교’

+
얼마 전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된 ‘군포생태농부학교’는 ‘흙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4050세대들의 즐거운 도전이었다.



16 건강쑥쑥

입맛이 떨어진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식
케이준치킨 샐러드

+
더운 여름, 입맛이 떨어진 아이를 위해 8월의 건강간식인 ‘케이준치킨 샐러드’로 아이의 입맛을 살려보자.





어린이 위생과 영양을 위한 최고의 서포터즈
**군포시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6월 27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문을 연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생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군포시 어린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글 김은 사진 주효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 '의·식·주'를 꼽을 것이다.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의·식·주'가 제대로 충족돼야 그 것을 토대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저마다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의·식·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다.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가 때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맛있게 '잘 먹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불변의 가치다. 맛과 건강, 그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던가.

특히, 한창 성장할 시기의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

리를 제공하는 일은 교육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근대 교육론의 핵심 가치인 '지덕체'는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굳이 '지덕체'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잘 먹이는 것'은 아이를 '사람답게' 키우는 출발점이 된다. 요즘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 역시 '보편적 복지'보다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시작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6월 말 개소한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런 이유에서 무척 중요한 곳이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맛과 건강'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구체적인 실행법을 교육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군포의 아이들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한 건강한 출발점, 그곳이 바로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다.

100인 미만시설의 영양과 위생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곳이다.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는 100인 이상 시설과 달리 100인 미만 시설은 법적으로 별다른 강제사항이 없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월 말 현재 군포지역에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체 보육시설의 약 80%인 296곳(어린이집 284, 유치원 12)이다. 군포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 지역에서 100인 미만인 곳이 전체 보육시설의 80~90%에 이른다. 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이 정기적으로 관리·점검을 하지만, 자체 영양·위생사를 두지 않아도 되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점을 이현옥 센터장은 지적한다.

“우리 센터는 100인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식단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위생 관리,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안, 관련 시설·설비 관리, 대상별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을 포함한 사업범위, 조직구성, 교육횟수 등은 식약처에서 마련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100인 미만 어린이 시설은 지금까지 급식이나 위생 분야에 이렇다 할 매뉴얼이란 게 없었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표준화된 가이드를 보급하고 교육해서 100인 미만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식품영양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100인 미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앞으로 참여를 희망한 보육시설에 전문 영양사와 위생사를 순회 파견해 식단표 작성과 급식시설 위생 관리, 영양교육 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포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27일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현재 센터는 센터장(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현옥 학과장)을 포함해 팀장, 팀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직원들 모두 영양사 및 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들이다. 예산에 따라 사업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내년에는 직원을 9명 증원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순회방문 지원(위생·안전·영양 관련 현장 지도) ▲대상별 교육 지원(어린이, 원장 및 교사, 조리원, 학부모) ▲급식소 컨설팅(급식 관리, 구매 관리, 작업 관리 등) ▲식단, 표준레시피 개발 및 보급 ▲정보 제공(월 1회 위생·안전, 영양 관련 가정통신문 개발 및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특화사업으로는 어린이 교육(식품 예술치료 접목 영양교육, 건강캠프 등), 학부모 교육(아빠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손자 손녀 간식 만들기), 원장/조리원 교육(나트륨 저감화, 저당화), 급식소 지원(안심급식 인증 현판, 맞춤 특화 식단) 등이 진행된다.

이로써 앞으로 관내 소규모 보육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도록 돕고, 급식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군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양·위생 교육의 마중물이 될 터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안으로 관리 대상 80곳 확보를 목표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포시어린이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현옥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결코 감시나 감독을 하는 곳이 아님을 강조한다.

“우리 센터는 기관명에 나와 있듯이 오로지 지원을 위해 탄생한 시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을 일선 원장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며 “군포시 100인 미만의 열악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영양·위생 교육의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이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먼저 해당 시설에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군포시에 이런 시설이 생겼는데 우리 어린이집도 가입해야 하지 않냐고 학부모들이 말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흘러들 수 없



이현옥 센터장(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장)

기 때문이다. 아동을 둔 군포시 학부모들에게 센터가 많이 알려져서 좋은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안심급식, 위생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군포시의 모든 어린이에게 골고루 혜택을 전한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싶다는 센터 직원들의 희망이 하루빨리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원해본다.

군포시 고산로 685, 602호(산본동, 한빛타운 6층)

<http://ccfsm.foodnara.go.kr/gunpo>

399-7338-9



제5회 평생학습축제 준비 박차 9월 2일 개최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 정리



군포시가 제5회 평생학습축제를 알차고 재미있게 개최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운영될 올해 군포시 평생학습축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2016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기간에 개최된다.

때문에 시는 두 가지 축제가 상호 보완 및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평생학습 축제 참여기관 대표자 등을 추진기획단으로 위촉,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평생학습축제 홍보 부스는 전시·체험·기획마당의 3가지 분야로 나뉘져 중앙공원에 마련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배우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김국래 책임정책과장은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축제를 만들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참여기관 대표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확정하려 한다”며 “공연과 독서골든벨 등 재미와 학습이 공존할 평생학습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동아리 공연, 생활문화동호회 작품 전시, 체험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제5회 군포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책임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책임정책과 390-0903

개방화장실 안전·편의 향상 비상벨 설치하고, 위치 안내 입간판도 세워

군포시가 지역 내 개방화장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향상했다.

시와 민간 건물주의 협의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민간 개방화장실 가운데 남·여 공동 사용 시설인 2개소에 비상벨과 경광등을 설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위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산본로데오거리 내 개방화장실 15개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입간판 2개를 제작·설치해 시민 및 상가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산본로데오거리 중심의 분수광장에 설치된 개방화장실 안내 입간판은 지역 상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심어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은 “강남역 인근 건물 남녀공



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중에 개방된 화장실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져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개방화장실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9월 산본로데오거리 내 개방화장실 입구에 현판을 설치해 이용 희망자들이 찾기 쉽게 한 바 있으나 더 자세한 안내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보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남녀공용 개방화장실 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인 전철 1호선 군포역과 등산객이 많은 수리산 내 수리산 인근 공중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하수도사업소 390-3277

한 눈에 보는 군포

군포·고양·안산에 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 설치

경기도와 군포시, 고양시, 안산시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를 위해 도와 3개 시, 근로복지공단은 7월 4일 오전 도청에서 남경필 지사와 김운주 군포시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는 올해 안에 10개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우선 처리한다.

또 도와 각 시는 참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확보, 신속한 설치 인가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과 390-0699

시청 북카페에서 ‘느린 우체통’ 운영

군포시가 시청 현관 밥상머리 북카페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느린 우체통’ 사업은 이용자가 작성한 엽서를 1년 후에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군포시청 밥상머리 북카페에 비치된 전용 엽서에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다만 발송 지역은 국내로 제한되며, 올해 작성된 엽서는 2017년 1월 5일 우체국에 보내져 발송된다. 시는 앞으로 매년 1월 5일 ‘느린 우체통’을 개봉해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군포우체국으로부터 작은 우체통 1개와 우편엽서 400장을 기증받았다. 시는 운영 상황에 따라 전용 엽서를 추가로 구비, 시청을 찾는 사람들에게 느림의 미학과 소통의 기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정책과 390-0902

2016 군포시 하계 휴양소 운영

군포시민을 위한 하계 휴양소가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해변에 마련된 2016 하계 휴양소는 군포시민이라면 1가족(4인 기준)당 파라솔, 튜브, 야영장, 샤워장 이용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동호행정봉사실에서 명부작성 후 감면 이용권을 수령하여 각 대여소에서 감면 이용권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올해 하계 휴양소는 자매단체인 양양군에서 군포시민을 위해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며, 파라솔, 튜브, 샤워장, 야영장 이외에는 모두 본인 부담이다.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3

의장 이석진 의원, 부의장 이견행 의원 선출
제7대 군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의장 이석진 부의장 이견행

군포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2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비례대표 1인의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시의원이 활동 중인 군포시의회는 이날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장에서 치러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석진(55,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 참석자 9명 중 5명의 찬성표를 얻어 제7대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어 계속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재적 의원 9명 가운데 5표를 획득한 이견행(52,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부의장직에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이석진 의원은 가선거구(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군포청년회의소 회장을 거쳐 새누리당 군포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제6~7대 군포시

의회 의원, 제7대 상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부의장에 선출된 이견행 의원은 다선거구(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로,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군포청년회의소 회장, 제6~7대 군포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석진 의원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견행 부의장은 “군포시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9만 군포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으로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의회
시의회 단신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별)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접수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숙)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중앙도서관 군포역사관 설치 사업을 비롯해 총 9개 사업에서 8억3천936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편성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 삭감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상정할 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 상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열람실을 없애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은 만큼 군포역사관 설치 예정 공간 등에 열람실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사무과 390-8713

Interview

[열린 의정]



군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7대 군포시의회 하반기 의장

이석진 의원

Q.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는데 취임 소감은?

A. 하반기 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선된 것은 동료의원님들보다 특출나서가 아니라 단지 저에게 군포시의회를 대표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보라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Q. 제7대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은?

A. 4.13 총선 이후 양당체제가 3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다양해질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군포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도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Q. 하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은?

A.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고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군포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화·고도화돼가는 시민들의 의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은 전문성에 성실성을 더해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A. 제7대 군포시의회 9명의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이자 일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남은 2년 동안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조하면서 군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동아리들의 학습공간 '마당'이 열린다

이제 군포시의 동아리들은 더 이상 학습공간을 찾아 헤메지 않아도 된다. 자신들의 모임 성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해 마음껏 학습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 된다. 동네 동아리들의 학습공간인 '마당'이 열렸으니 마음껏 누리보자.

글·사진 편집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학습공간의 개방 요일과 시간은 모두 다르며,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군포시평생학습포털(educi.gunpo.go.kr)에 동아리등록을 마친 후 사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필요

군포시는 지난 2013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학습 공동체를 양성하고, 민간과 협력해 생활 중심의 학습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 전체를 학습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마당' 역시 소규모 학습모임 조성을 통해 소통과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군포시는 재능 및 공간기부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 주도로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의 공공기관과 평생학습시설, 카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학습공간 개방 사업 참여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내 평생학습기관 10개소를 모집해 '우리동네 학습공간 마당'으로

선정했다. 공공기관 유휴공간, 평생학습시설 동아리실 등 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해 관내 학습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시는 6월에 학습공간 대표인 '마당지기'들과 간담회를 하고, 학습공간임을 알리는 '마당의 현판을 제작하는 등 마당의 순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학습동아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마당' 운영에 대해 김국래 책임은정책과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간이 없어 편히 모임을 하지 못했던 동아리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책읽는정책과 390-0787

지역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학습공간 무상 제공

평생학습의 선두주자인 군포시는 그동안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결과 부문별로 학습동아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및 배달강좌제 사업추진으로 신규 평생학습 동아리가 다수 결성됐다(등록동아리: 135개).

하지만 학습동아리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해 공공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시설을 막론하고 여유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앞으로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은 시의회, 교육지원청, 여성회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등 10개 기관·단체의 회의실이나 강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포시는 지역 내 10개 기관·단체와 협력해 문화예술을 포함한 각종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결성·운영되는 동아리에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 마당'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군포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위해 평소 친숙한 생활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우리 동네 학습공간 마당' 현황(10개소)

기관	공간	개방 시간	사용 예약
군포시평생학습원	마당(5층)	매주 월 15:00~19:00	군포시평생학습포털 educi.gunpo.go.kr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2층)	매주 월 14:00~16:00	
군포시왕교육지원청	에듀자료실(1층)	매주 월 10:00~12:00	
꽃이 되었다	103호(1층)	매주 월~금 09:00~17:00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강의실, 다목적실(1층)	매주 화~금 10:00~14:00	
군포시여성회관	여담도서관(1층)	매주 월~금 10:00~17:00	
가야종합사회복지관	집단지도 I 교실(2층)	매주 월·금 10:00~14:00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교육장 2(2층)	매주 일 11:00~15:00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지혜교실(1층)	매주 수 10:00~12:00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룸대 2실(2층)	매주 화 09:00~12:00	

지자체 최초로 금형 비전포럼 개최... 스마트 금형기술의 향연

한국금형의 미래 군포에서 확인됐다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금형 비전포럼'을 주최했다. '한국금형 비전포럼'은 뿌리산업인 금형

산업 분야의 대·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올해로 19회째 개최된 전통 있는 행사다.

시와 한국금형기술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 전국의 220여개 금형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스마트 금형기술'이란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나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스마트 공장 거점클러스터 추진정책'을 설명한 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은 큰 호응을 받았고, 금속 3D 프린트와 트랜스퍼이송장치 개발 등을 소개·발표한 기업과 기술사들은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내 금형 분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봄부터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번 포럼 공동 주최도 이런 시의 노력을 접한 한국금형기술사회에서 제의해 이뤄진 것으로, 시는 향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추진과 관련해 금형기술사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과 390-0284

군포첨단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국비 15억5천만원 지원 받아

군포시 부곡동 군포첨단산업단지에 2018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군포산업진흥원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942㎡)로 지어져 0세부터 5세까지 총 99명을 보육한다. 시는 향후 보육수요 증가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어린이집 건립비 등 15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공영개발과 390-0817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일자리 상담 능력도 장착

군포시가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교육을 시행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군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이나 병원 이용방법 안내, 각종 교육 정보 공유, 통·번역 등 생활 편의를 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대상 일자리 상담 교육은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모국어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www.gunpo.go.kr)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gunposi.liveinkorea.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여성가족과 390-060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95-1811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직종 조경관리(국비무료)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8월 26일(금)까지 / 접수 후 면접전형 실시
자격 고용센터, Work-net 등에 구직 등록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혜택 훈련장려금 지급(매월 최대 41만6천원)
 ※ 단위기간별 소정훈련 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지원
신청 구직등록·신청 필수
 (Work-Net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교육비 전액 무료(수강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기 검정수수료 1회 지급)
문의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390-3920~2

군포일자리센터 8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한국미향	군포시 고산로 166, 102동 802호 (당정동, SK벤티움)	식품 첨가물	구매사무원 (회계가능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031-436-0043
자연밥상	군포시 광정로 78, B층 5,6,8,9,10호 (산본동)	한식음식점	주방/홀씨빙 2명	주 5일 09:30~15:30	월급 100만원	031-392-5228
가온누리 주단기보호센터	군포시 군포로 444, 4층 (당동, 서일빌딩)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 5명	주 5일 9:00~12:00 / 10:00~14:00	시급 6,800원	031-398-0123
(주)세정파트 앤머시너리	군포시 고산로 166 (당정동)	건설기계장비, 중장비 부품, 브레이크	해외영업 (스페인어 가능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50만원	070-8611-2164
(주)아이디에프	군포시 농심로59번길 11 (당정동)	LED 컨버터 및 조명	LED컨버터 검사원 및 조립원 3명	평일 08:30~17:30	월급 130만원	031-451-0994
너심휴간호박사네	군포시 고산로 256, 402호 (당동, 금강프라자)	노인요양시설	물리치료사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85만원	031-395-6700
한인특수강(주)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60번길 11 (당정동)	특수강 절단 및 가공(밀링, 연마)	경리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80만원	010-8291-6328
우진교구산업(주)	군포시 공단로 171 (당동)	학생용 책걸상 생산	가구 생산직 2명	평일 08:30~17:30	월급 150만원	031-455-1188
(주)이우기기	군포시 흥안대로 15-31 (금정동)	가스 누설 경보기, 차단 장치, 가스 감시제어 시스템, 독성 및 환경감시 시스템	전자제품개발 및 펌웨어 프로그램 개발직 1명	평일 08:30~17:30	연봉 4,000만원	031-459-6773
백산크레인모터스	군포시 엘에스로182번길 28-6 (산본동)	트럭장착용 집게크레인 판매 및 수리	유압 크레인 정비 AS기사 및 용접사 1명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5:00	월급 200만원	031-454-2629

열대야? 그게 뭣이 중헌디! 한여름밤의 꿀 같은 군포시 더위 탈출 명소

정리 편집실



물그림자와 낙조 수채화 같은
반월호수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잊다
철쭉동산



적당한 운동 후에 찾아오는 꿀잠
당정근린공원



여름밤, 별 보기 참 좋은
누리천문대

반월호수는 대야동의 맨 안쪽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북서쪽에 있는 집예골, 샘골, 지방바위골의 물이 남동 방향으로 흘러 반월호수로 흘러든다. 반월호수는 수줍은 시골색시처럼 안쪽으로 돌아앉아 소리 없이 눈으로 웃어 주는 듯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호수 건너편 자그만 산등성이가 일년 내내 듬직한 물그림자를 만들어 주고, 해질녘이면 주홍빛 낙조가 번지는 조용한 호수다.

말없이 물속에 누워 있는 산 그림자와 호젓이 피어오르는 새벽의 물안개, 해질 무렵이면 가슴속까지 그리움으로 물들이는 주홍빛 낙조, 밤이면 수면 위로 길게 꼬리를 끌며 하늘까지 이어지는 은빛 달그림자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 속에 살포시 자리하는 시 같고 그림 같은 마음 한줄을 느낄 수 있다.

반월호수의 다양한 낮과 밤의 얼굴에는 이처럼 한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찾아오기에 금상첨화인 곳이다.

군포시 둔대동 332번지

군포시에는 공원이 많다. 공원마다 테마별로 조성되어 즐거움을 주지만 그 중 최고의 명소는 단연 철쭉동산이 아닐까 한다. 수도권 최고의 철쭉 군락지로 자리매김한 철쭉동산은 산본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군포시 최고의 쉼터다.

철쭉동산은 인공으로 조성된 철쭉단지다. 애초에 버려져 있던 언덕에 자산홍과 산철쭉 20만 본을 식재해 조성된 이곳은 지금은 명실공히 군포시를 대표할만한 명소가 됐다.

동산 입구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뽑아내는 철쭉폭포가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40여 평의 부지에 길이 40m, 너비 20m 규모로 주폭포 1개와 보조폭포 2개를 갖추고 있으며 계류 시설과 조명시설, 토피어리, 휴식공간 등을 마련하여 찾는 이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인접한 철쭉공원 역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기자기한 화단길, 작은 규모지만 편히 쉬 수 있는 잔디광장, 운동시설 등 또 다른 쉼터로 손색이 없다.

군포시 수리동 1152-10

당정근린공원은 생활 속에 도시숲 공원으로, 산책 및 자연 감상과 놀이, 체력 단련을 위해 시민들의 자주 애용하는 곳이다.

이곳은 도심지역 내 공원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의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당정역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함께 추진되어 조성된 공간이다.

당정역사와 연계한 주차시설,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어린이놀이터, 소나무 숲 등의 아기자기한 조경시설이 잘 조성된 군포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공원 중앙에 자연석을 활용한 폭포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원 외곽을 도는 조깅트랙과 워킹코스는 걷는 즐거움을 누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적당한 운동 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무더위에 지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을 찾아 잠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군포1동 당정역 앞

누리란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 옛말로, 누리천문대는 인간 세상과 별 세상을 연결해주는 열린 천문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곳은 대야동 주민자치센터 내 대야도서관 4층, 5층에 자리잡은 이곳은 다양한 체험코스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누리천문대는 군포시를 대표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 천문대, 천문우주체험관, 4D 입체상영관, 플라네타리움 등 아담하고 알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북극성과 안드로메다은하, 토성의 고리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다.

대형굴절망원경으로 태양과 달, 행성 등 다양한 천체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와 천장 스크린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재현해 놓은 플라네타리움, 3D 입체 PC와 달 위상변화 체험기 등을 갖춘 천문우주체험관, 그리고 4D 입체상영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여름 밤에 색다른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군포시 대야2로 139 대야도서관 4.5층



구석구석을 마을 정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산본1동의 아름다운 기적

내가 사는 집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마을 정원 사업을 성공시킨 산본1동은 올해 '벽화 그리기'와 '전신주 환경개선'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산본1동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기적을 만나보자.

글 김은



전신주 환경 개선 전과 후

쓰레기 문제를 마을 축제로 승화시키다

지난 5월 20일, 군포시 산본1동에 작은 축제가 열렸다. 규모로 보면 마을잔치라는 말이 더 어울렸지만, 취지와 배경만큼은 여느 페스티벌 못지않았다.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축제는 '골목 정원에서 즐기는 환경사랑 국수잔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산본1동은 2015년 6월부터 생활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장소나 상대적으로 미관이 취약한 곳의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 정원을 조성했다. 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을잔치를 연 것이다. 산본1동은 지난해 10월에도 마을잔치를 열었는데, 올해 행사는 지역 거주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의 협조를 받아 마을 가꾸기 활동 사진 전시와 에코 비누 만들기, 쓰레기로 그림 그리기 등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공연에 이어 새마을 회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국수와 간식을



즐기는 시간도 마련했다.

과연 그동안 산본1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마을잔치까지 할까. 그 이유에 대해 문영철 산본1동장은 "늘 생활 쓰레기가 골치였어요.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죠."라고 설명했다.

자치위원회는 물론 마을주민이 참여해 어떻게 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논의에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산본1동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마을 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해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주택가와 골목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정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생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꽃과 나무 등을 심어 깨끗하고 정갈한 마을 정원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산본1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지역인 산본천로227번길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을 주관할 주민자치 조직인 '군포시 노루목푸르미회',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산본1동의 아름다운 기적은 그렇게 시작됐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다

산본1동 주민들은 매주 정기적 모임을 하며 마을 정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3개월간 진행된 사업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자치조직인 '군

포시 노루목푸르미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생활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던 곳이 마을 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예전에는 쌓여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던 곳이 어느새 하나둘 주민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모했다.

산본1동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살기 좋은 동네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는 다짐 하에 마을 주민들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0ℓ 쓰레기봉투로 한 달 버티기, 무단투기 없애기(2개소 선정해 말하는 로봇 설치), 내 집 앞 예쁜 쓰레기통 설치(5개소에 리폼 쓰레기통 배치), 다가구주택 분리수거함 설치(3개소)와 같은 쓰레기 불법 배출 감소 방안과 환경개선 사업을 주민들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산본1동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매주 1회 참여 세대와의 토론, 사업 현장 확인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와 함께 영상으로 제작한다. 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을축제도 열고 있다.

이와 같은 산본1동의 주민자치사업인 '마을 정원 만들기',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골목 만들기'는 올해 1월에 대구광역시 북구의 시의원과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갈 정도로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도 주민이 힘을 모아 함께할 산본1동의 아름다운 도전, 기분 좋은 기적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기원해본다.

Interview

산본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현성** 위원장

'살기 좋은 동네, 깨끗한 우리 동네'를 함께 만들시다!

산본1동은 구도심 지역으로, 원주민과 더불어 3,000여명의 중국 조선족 분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다세대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쓰레기 투기가 골칫거리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

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 정원사업도 그런 의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정원도 만들고, 전신주에 예쁜 그림도 그리고, 분리수거가 쉽도록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주

민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단타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유지보수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함께해주시는 산본1동 주민 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포시평생학습원 '군포생태농부학교' 귀농귀촌을 꿈꾸는 4050들의 유쾌한 도전

수구초심. 누구에게나 고향은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다. 고향이란 단어에 '흙'을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은 사람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날이 갈수록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은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회의감, 그로 인한 새로운 깨달음이 늘어감을 방증한다. 얼마 전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된 '군포생태농부학교'는 '흙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4050세대들의 즐거운 도전이었다.

글 김은 사진 주효상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삶의 학교

지난 6월 9일, 군포시평생학습원 마당에서 색다른 수료식이 열렸다.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세대를 위한 4050드림스쿨 '군포생태농부학교' 1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이자 1기 수료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리였다.

군포생태농부학교는 4050세대가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미리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군포시평생학습원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총 11주 동안 진행됐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군포시 40~50대를 대상으로 귀농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전통주 담그기, 손 모내기 등 귀농생활에 대한 실습을 함께 진행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군포시평생학습원은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사)전국귀농운동본부(군포시 속달동 24-4번지)와 지난 4월 '군포생태농부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업 커리큘럼과 강사진 구성에 큰 힘을 보탠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수업 동안 귀농에 대한 이론 및 현장체험,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귀농 상담, 귀농 희망지역 멘토 연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년 진행한 4050드림스쿨이지만 유독 올해 수업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4050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열어주던 기존의 운영 방식과는 달리,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고 뚜렷한 관심과 목표를 가진 수강생을 대상으로 환경, 생태, 귀농철학 등 회차별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군포시평생학습원 박찬웅 문화교육본부장은 생태농부학교에 대해 "은퇴 이후 인생을 새롭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을 돕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인생 후반전을 농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삶의 학교였다"고 평한다.



4050세대에게 전하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

군포생태농부학교는 11주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환경, 생태에 대한 귀농 철학을 새로이 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수료생들은 입을 모은다.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이던 귀농귀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고,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을 만나 현장감 있는 교육을 듣게 돼 좋았다고 한다. 특히 우리 농산물 종자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도 깨달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수료생들은 수료 이후에도 자체 모임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회장을 맡은 구기석(50) 씨는 "배웠던 것을 실천하고 그 뜻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임이 결성됐다"며 "1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활동과 도시농업 체험, 환경정화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료생 대부분이 아직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주 만날 기회가 적지만, 수료생 중에 군포에서 실제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 견학과 체험을 하면서 실제 농사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수료생 중 군포에서 직접 블루베리 농장을 경영 중인 김진오(58) 씨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크고 작은 농사를 지어온 준프로 농사꾼이다. 군포에서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살아온 그는 은퇴 후 고향인 전북 완주에 호두농장을 지을 계획이다.

그는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경쟁주의 사회에서 자칫 패배주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뚜렷한 목표와 의지만 있다면 무엇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군포생태농부학교 2기에서 성공한 강소농을 강사로 초빙한다면 수강생들에게 더욱 큰 꿈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군포생태농부학교를 통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예비농사꾼들이 탄생했다. 이제 두 번째 도전이 9월부터 시작된다.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수료생들은 말한다. 용기를 내라고, 망설이지 말라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 꿈을 나눈다면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크게 보면 비슷한 삶의 궤적을 지나온 4050세대에게 군포생태농부학교 수료생들이 전하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다.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2



2016 한여름 쿨 페스티벌

골라 듣는 재미, 골라 보는 즐거움! 한여름의 시원한 음악 선물



여름은 무더위라는 시련을 주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중 한여름 밤에 열리는 음악 축제에서는 무더위를 잊게 해줄 만큼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어느새 군포시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한여름 쿨 페스티벌'은 잊을 수 없는 멋과 낭만,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흥과 재미가 한 가득이다.

글 김은 사진 홍보실

락이나 재즈나 그것이 문제로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이는 없다는 바로 그 축제. 매년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 음악 축제인 '한여름 쿨 페스티벌'을 표현하는 말들은 무수히 많다. 군포시민에게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반월호수와 산본로데오거리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신나는 락과 운치 있는 재즈 공연을 골라 볼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졌다.

올해 행사가 유독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순 행사나 오락을 지향하는 기존방식과 차별화되는 색다른 재미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Rock & Jazz'라는 장르(테마)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또 보다 쾌적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식전행사와 형식을 줄여 공연의 본질적인 재미를 높이고 새로운 무대 디자인을 도입해 세련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자신을 도입해 세련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사)한국예총 군포지회가 주관하는 '2016 한여름 쿨 페스티벌'은 1회당 3팀, 팀당 30분 공연으로 대중성과 음악성을 가진 출연진을 섭외했다.

1회 공연인 14일(일)에는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로맨틱펀치>, <트랜스픽션>, <내 귀에 도청장치> 팀이 신나고 흥겨운 락 콘서트를 선보이고, 2회인 20일(토)에는 반월호수 수변 무대에서 <웅산 밴드>, <방방조 Jazz Band>, <이지연 Quartet> 팀이 국내 최고의 재즈 선율을 전한다.

이번 쿨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주변 상인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물을 한 아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여름밤, 쿨 페스티벌에 흠뻑 빠져 시원한 음악사워를 해보자.

홍보실 390-0666 / 군포예총 332-4511



2016 '한여름 쿨 페스티벌' 공연일정

일시	장소	내용	출연
8월 14일(일) 19:00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Rock Concert (모던락, 인디락 등)	로맨틱펀치 내 귀에 도청장치 트랜스픽션
8월 20일(토) 19:00	반월호수 수변 무대	Jazz Concert (스윙재즈, 몰재즈 등)	웅산 밴드 방방조 Jazz Band 이지연 Quartet

여름밤, 또 하나의 음악 선물

야외상시음악회 '책나라군포 예술무대'

7월부터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산본로데오거리, 청소년수련원(청양군) 등 6개소에서 클래식, 국악, 어쿠스틱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야외상시음악회인 '2016 책나라군포 예술무대'는 지난 7월 1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분수)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약 90분간 금관 5중주와 성악의 협연을 선보이는 클래식콘서트로 문을 열었다.

이어 8월 7일까지는 매주 일요일 같은 시간에 힙합과 우리 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산본로데오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8월 7일에는 슈퍼스타K 3의 TOP 11에 들었던 이정아, 팬층이 두터운 인디밴드 리메인즈 등이 군포를 찾아 시민들에게 시원한 밤을 선물한다. 올해 '책



나라군포 예술무대'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개최횟수를 줄이는 대신 1회 공연 사업비를 증액해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8월에는 예술무대 장소와 공연 요일 등이 달라지는데,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새 소식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홍보실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홍보실 390-0664



2016 '책나라군포 예술무대' 공연일정

일시	장소
7월 17일~8월 7일 (매주 일요일) 18:00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8월 19일(금) 19:00	초막골 생태공원
8월 21일(일) 19:00	당정근린공원 야외무대

어린이 분야 책 별도 선정... 9월 30일까지 추천 접수

'2017 군포의 책'은 아이도 쉽게 읽는다

정리 편집실



군포시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실질적 참여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2017 군포의 책'을 2개 분야로 나눠 한 권씩 선정한다.

그동안 선정됐던 '군포의 책'을 초등생 이하의 아동이 읽기에 쉽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 일반·청소년 도서와 아동 도서를 1권씩 군포의 책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9월 30일까지 '2017 군포의 책' 후보 도서 추천 접수를 진행하며, 분야별로 구분해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또 아동 분야 군포의 책을 뽑기 위

해 선정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나 독서회 회원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군포시민 모두가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공식 SNS, 전화(390-0905, 0901~3),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1인당 3권 이내의 도서를 추천하면 된다.

추천 대상 도서는 국내 작가의 국내 출판 단행본이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읽으며 소통할 수 있는 책으로, 상세 기준과 선정 절차는 시 책읽는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은 "군포의 책을 두 권 선정하는 일은 시민의 다양한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더 많은 시민의 독서문화운동 동참을 위한 선택"이라며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 사업도 더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매년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올해는 배우안 작가의 <뺑덕>을 군포의 책으로 선정한 후 연중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5

이달의 도서관 행사

9월 4일 시민 독서골든벨 개최,
7월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군포시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할 '2016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의 마지막 날 열리는 독서골든벨에서 독서왕이 될 가족이나 이웃사촌을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016 군포의 책 가족·이웃사랑 시민독서골든벨'에서 우승하면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독서왕의 영예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독서골든벨이 열릴 장소가 중앙공원에 개설될 동형 행사장이어서 참여 인원을 120명(60개 팀)으로 제한,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책읽는정책과 390-0905

삶의 질문 하나 해결하는

3분기 <밥이 되는 인문학>

군포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2016년 3분기 <밥이 되는 인문학> 강사진을 확정, 공개했다.

7월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 8월에는 삶의 진지한 풍경을 시속에 생생하게 녹여낸다고 평을 받은 객재구 시인이 군포를 찾는다. 객재구 시인은 '시 설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누구나 한번 써보고 싶어 하는 시의 비밀을 공유할 계획이다.

9월 강의에는 이슬람 전문가 이희수 교수가 강사로 초빙됐다. 이 교수는 '이슬람-성공한 중세, 실패한 근대'라는 주제로 이슬람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포시의 '밥이 되는 인문학'은 매월 1회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책읽는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3

군포시 도서관의 8월 추천 도서

01

<아동>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꼬마 돼지 레옹이 사는 버드나무 마을에서는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못 읽게 하는 시장과 시장의 음모를 알게 된 레옹의 활약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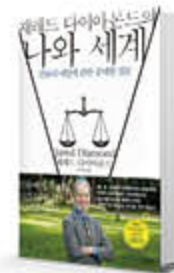
<청소년> 열세 살, 불안해도 괜찮아



아동심리전문가인 작가가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불안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불안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려 준다.

03

<성인> 나와 세계



이 책은 세계가 직면한 7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각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한다.

※ 더 많은 추천도서는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어린이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안내

기간 7월 26일(화)~8월 26일(금)

※ 연장 : 평일 2시간(오후 6시~8시)

대상 영유아자료실(1층),

아동자료실(2층)

※ 3층 디지털자료실은 연장운영 제외

내용 자료실 이용, 도서대출 및 반납 문의 어린이도서관 390-8680

한여름 밤, 야외 영화로 시원하게~

〈한여름 밤 별빛 영화 산책〉으로 피서하세요!



군포시가 열대야로 힘들어하는 시민, 여가를 위해 도시를 찾는 방문객 등을 위해 무료 야외 영화제를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진행한다.

‘2016 한여름 밤 별빛 영화 산책’이란 주제로 운영될 야외 상시 영화제는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행된다. 초막골 생태공원, 철죽동산, 금정제일공원, 당정근린공원에서 각각 2회씩 밤 8시부터 10시까지 총 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 장소를 찾아오는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하지만, 비가 오면 영화제는 취소(일정 변경)되니 상세 일정과 상영 영화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익재 홍보실장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행사를 도시 곳곳에서 개최해 시민의 일상에 시원함과 재미를 선사하고,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말했다.

홍보실 390-0666

장소	일정	시간
철죽동산	7월 29일(금) 〈페어런트 트랩〉 7월 30일(토) 〈스콜 오브 락〉	20:00~22:00
금정제일공원	8월 5일(금) 〈죽은 시인의 사회〉 8월 6일(토) 〈인사이드 아웃〉	
당정근린공원	8월 12일(금) 〈후크〉 8월 13일(토) 〈미니언즈〉	

* 우천 시 상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상영작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 8월 G시네마 & 공연



8월 1일, 8일(월) 11:00
안녕, 전우체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등급 전체
입장료 1,000원



8월 4일(목) 14:00
에이아이(A.I.)
장소 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입장료 무료



8월 22일, 29일(월) 11:00
살인재능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등급 청소년 불가
입장료 1,000원



8월 19일(금)~20(토), 2일 2회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장소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등급 5세 이상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여성회관 제60기 교육수강생 모집

- 10% 우선접수
- 일시 8월 2일 오전 9시~오후 6시
 - 대상 군포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반장, 여성회관 자원활동가 중 1인 1강좌
 - 인원 모집 정원의 10% 내외 선착순 접수
 - 접수 방문접수

상위단계 우선접수

- 일시 8월 3일 오전 9시~오후 6시
- 대상 59기 교육수료생 중 동일과목의 상급과정 신청자
- 인원 정원 내 선착순 접수
- 접수 방문접수

일반접수

- 8월 4일 오전 9시부터 자격증, 교양, 문화예술, 여담 프로그램
- 8월 5일 오전 9시부터 기술기능, 건강, 야간 프로그램
- 8월 8일 오전 9시부터 컴퓨터, 외국어, 실버, 특강 프로그램
- 접수방법 및 모집인원 인터넷접수 80%, 방문접수 20%(단, 실버 프로그램은 인터넷, 방문 각각 50%)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080

여름방학 단기 청소년자원봉사 '포미천사' 모집

- 대상 관내 청소년(중1~고3)
- 내용 문화의집 내 봉사활동 (안내데스크 지원 및 환경정리)
- 장소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인원 00명(선착순 접수)
- 일시 8월 14일(일)까지
- 접수 두볼넷(www.dovol.net)
- 문의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82

군포시평생학습원 제63기(9월~11월) 수강생 모집

- 교육 9월 1일~11월 30일(총12주)
- 과목 총 220여 강좌(정원: 4,000여명)
- 접수 8월 2일~8월 31일
- 문의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0~8

청소년수련관 가을학기 회원 모집

- 기간 8월 17일부터 선착순 마감
- 교육 9월~11월
- 접수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및 인터넷 접수
- 내용 문화교육, 창의과학, 건강체육 등
- 문의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90-1400

군포시니어클럽 우쿨렐레 기초반 모집

- 대상 우쿨렐레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 10명)
- 교육 8월 22일~12월 / 매주 1, 3주 월요일 오후 3시~4시
- 모집 7월 18일(월)~8월 5일(금)
- 접수 교육첨가신청서 접수(내방, 이메일) gunpocsc@hanmail.net
- 비용 전액 무료, 연습용 우쿨렐레 제공
- 문의 군포시니어클럽 454-2077

개구리들의 합창은 계속된다

함운식 | 군포2동

10년 전에 새 직장을 얻어 당동지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결혼해 당동에 거주하게 됐다. 종종 밤늦게 동네를 산책하곤 했는데 특히 지금의 당정역 주변을 자주 찾았다. 작은 시냇물이 있어 마치 시골 같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름철 밤늦게 가면 더위를 식힐 뿐만 아니라 멋진 개구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장마철에는 개구리 친구들의 합창이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웅장하고 감동적이었다. 개구리들의 합창은 도시생활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가끔은 내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 개구리들과 함께 웅장한 합창을 연주하는 착각 속에 빠졌고, 한참 합창 지휘를 하고 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곤 했었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서 개구리들과의 좋은 만남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내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만 자리 잡았다. 또한, 몇 년이 지난 후 당정역 인근에는 생활체육·문화시설이 설치된 근린공원이 조성돼 풍경이 달라졌다.

그런데 며칠 전 밤늦게 친구와 당정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며 문득 옛 개구리 친구들이 생각났다. '10년 전 밤마다 나에게 멋진 합창을 들려주던 그 친구들이 아직도 살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곳도 여러모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개구리 친구들이 없겠지'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갔다. 공원 주변은 밤이지만 예전과 달리 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산책·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귀를 기울여 봤지만, 개구리 친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친구랑 의자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 대부분이 공원을 빠져나갔을 때 어디선가 여러 마리 개구리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아직도 이곳에 있었구나" 10년 전보다는 못했지만, 여전히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웅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합창으로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개구리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다. 지난 시간 동안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날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에 개구리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찼다. 이번에는 지휘자가 아닌 한 명의 관객으로 개구리 친구들의 합창에 박수를 보냈다.

"개구리들아~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의 멋진 합창을 들려줘 ^^ 고맙고, 사랑한다."



풍경소리

조태원 | 군포2동

어디서 날아온 꽃잎일까
세차게 풍경을 후려치고
휘돌아 떨어진다.

영성을 씻어주는 솔바람 소리
목탁소리 풍경소리 어우러진
산사의 묘음은 퍼져 나가는데

뎡그렁뎡그렁 풍경이 울리니
아파서 우는 것일까
울어 주는 것일까

지팡이를 내려놓는 한 등산객
대웅전 앞에서 공손히 합장을 한다.

풍경소리는 아랑곳없다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카메라를 들꽃에
요리조리 들이댄다.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국그릇, 유리컵, 계란후라이, 달팽이, 생쥐, 전기드릴, 앵두
수수께끼 '000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수준을 높인다. ⇨ 2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8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소풍 나온 다람쥐

박영란 | 광정동

수리산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그늘에 앉아 쉬며
간식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나~~~
살금살금 다람쥐가 나들이 나왔다.
그래서 콩 한쪽을 주었더니
두 손으로 잡고 먹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앙증맞아서 한 컷 ^^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수채화 같은 세상을 화폭에 담다

경기수채화작가회

‘빛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1980년대 후반 큰 인기를 얻었던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경기수채화작가회를 인터뷰하러 가던 날도 장마가 즐기치게 내리고 있었다. 카페 한 편에 자리한 화실 문을 열자 수채화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글 김은 사진 주효상



물맛을 아는 사람들

수채화는 여러 가지 안료(顔料)를 물에 개거나 풀어서 그리는 그림으로, 유화와 더불어 서양회화 양식 중 가장 대표적인 화법이다.

식물성유나 휘발성유 등의 ‘기름’을 활용하는 유화와 달리 수채화는 말 그대로 오로지 ‘물’의 힘에 의지한다. 마치 동양화의 산수묵화(山水墨畵)나 담채화(淡彩畵)를 연상시키듯 물이 가진 ‘부드러움’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수채화는 풍경이나 정물을 그리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흔히 ‘수채화 같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경기수채화작가회는 2004년 결성돼 활동 중인 모임이다.

군포시평생학습원(당시 군포문화센터)과 군포시여성회관에서 수채화 반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경기수채화작가회를 결성했다. 16명 안팎의 회원 대부분이 군포시민으로, 매주 화요일 화실에 모여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원래 개인 작업이다 보니 평소 집이나 수채화 교실에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실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그림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올 초 화장에 선임된 김장희(43) 씨는 30~50대의 다양한 연령이지만 그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회원들 모두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 회장이자 현재 자문직을 맡은 지미혜(49) 씨의 개인 화실에 모여 그림도 그리고, 아

이디어도 얻고 조언도 들으며 한 걸음씩 더 나은 작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채화 같은 세상을 꿈꾸다

지미혜 씨는 수채화가 가진 매력을 한마디로 ‘다양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수채화는 19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화작품을 위한 밑그림, 또는 수업 일부로서 거치는 소위 이류의 회화양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의 채색을 사용하지 않는 소묘(素描)와 더불어 세계 미술에서 독자적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실제로 수채화와 유화는 표현방식이나 기법이 다를 뿐, 엄격하게 그 경향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유화에서는 불가능한 물을 이용한 번지기와 뿌리기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물감의 발달로 유화 못지않게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됐어요. 빨리 마르다 보니 작업 속도가 빨라 구상한 아이디어를 다양

하게 그림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수채화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경기수채화작가회는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 함께 스케치 여행을 떠나는 등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회원 모두 2~3점씩 그림을 출품해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전시회를 열었다.

수채화를 그리며 언제까지나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김장희 회장의 말처럼, 그림 하나로 인연을 맺은 경기수채화작가회 사람들은 수채화 같은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화폭에 붓을 가져간다.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군포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 제2회 군포 <생·동·감> 생활 문화제



생활문화예술 중심도시 군포에서 음악, 미술, 무용, 국악 등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펼쳐집니다. 8월 철쭉동산에 생활문화동호회의 다양한 꽃이 만발합니다

장소 철쭉동산 상설무대
 주최·주관 (재)군포문화재단
 문의 (재)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본부 390-3071~3

삼국열전-우리는 밴드다	8. 27(토) 16:00~18:00	노래마당사람들, 디시밴드, 데이비밴드 등
군포생동감 생활문화제	8. 27(토) 18:00~21:30	기타, 노래, 악기, 밴드, 무용, 국악 등
	8. 28(일) 18:00~21:30	수채화, 연필화, 아심회 등
군포독서대전 평생학습축제	8. 20(토)~28(일)	캐논클럽

◆◆◆ 세계나라 동전 모으기 운동

-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을 응원합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세계 여러 나라 동전을 모으면 결혼 이민자 가족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금기간 8. 1~12. 31
 모금함 비치 장소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도서관
 모금종류 세계나라 화폐(지폐, 동전) 모두
 ※ 동전기부자 후원 영수증 발급(환전금액 1만원부터)
 ※ 동전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50%) 제외함

여성가족과 390-08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95-1811

수족구병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라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의 확산이 한풀 꺾였지만, 8월까지의 유행이 예상된다며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생활화해달라는 보도를 전했다. 특히 영유아 아이들에게 잘 감염되는 수족구병의 징체와 예방법을 알아보자.



수족구병이란?

수족구(手足口)병은 이름 그대로 손과 발, 그리고 입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개는 가벼운 미열 등의 증상이 있으며 입안의 물집이 터져 일시적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된다. 다행히 수족구병은 중증 감염질환은 아니어서 발병 후 1주일 정도면 치유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에서 끝이 나지만 심하면 무균성 수막염이나 뇌염 등 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병에 잘 걸리는 나이는 0~6세의 영유아로, 대개 10세 미만이지만 요즘 같은 유행 시기에는 접촉을 통해 청소년,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현재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적절한 수분 공급과 해열제 및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이 좋다.

수족구병 예방법은?

① 외출, 배변, 식사 전후 손 씻기

수족구병은 환자의 변이나 일상생활 도구,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침이 입으로 들어오거나 피부 물집의 진물

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손을 잘 씻고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

②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 가능한 피하기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③ 아이들 장난감, 집기 등은 반드시 소독하기

수족구병은 장난감, 수건, 집기 등의 매개체를 통해 옮기기도 한다. 면역력이 강한 아이라면 수족구병에 걸렸더라도 가볍게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심한 증상과 통증이 동반된다. 어린아이가 자주 가지고 노는 물건이라면 전용 세제로 세척하는 등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에 물 수 있는 물건은 자주 소독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맛이 떨어진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식 케이준치킨 샐러드

산본보건지소는 미취학 아동의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섭취를 줄이고,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간식 만들기' 교실을 운영한다. 더운 여름, 입맛이 떨어진 아이를 위해 8월의 건강간식인 '케이준치킨 샐러드'로 아이의 입맛을 살려보자.



재료 - 샐러드 잎채소(2½컵), 방울토마토(1컵), 닭 안심(6개=200g), 청주(1큰술), 밀가루(½컵), 파르메산치즈 가루(2큰술), 달걀(2개), 빵가루(1½컵), 소금·후춧가루 약간

조리방법

- ① 닭 안심의 흰 심지를 제거한 뒤 소금, 후춧가루, 청주에 버무린다.
- ② 밀가루 -> 파르메산치즈 가루 섞은 달걀 물 ->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힌다.
- ③ 170℃로 예열한 식용유(2컵)에 넣어 노릇하게 튀겨 건진 뒤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뺀다.
- ④ 샐러드 잎채소는 한입 크기로 뜯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둔다.
- ⑤ 양파를 다져 드레싱을 고루 섞는다.
- ⑥ 드레싱에 샐러드 잎채소와 방울토마토를 버무려 그릇에 담은 뒤 케이준치킨을 올려 마무리한다.

산본보건지소 390-8924

고혈압 건강교실

기간 8월 3일~8월 24일(매주 수요일)
시간 오전 10시 ~ 11시(1시간)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소교육실(운동은 대교육실)
방법 선착순, 전화 신청
기타 4주 교육수로 시 9월 고혈압 영양요리교실 신청 시 우선 접수가능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당뇨병 건강교실

기간 8월 5일~8월 26일(매주 금요일)
시간 오전 10시~11시(1시간)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방법 선착순, 전화 신청
기타 4주 교육수로 시 9월 당뇨병 영양요리교실 신청 시 우선 접수가능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우리아이 건강간식 요리교실

기간 8월 18일(목)
시간 오전 10시
대상 미취학 아동 보호자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영양교육실
내용 우리아이 건강간식 만들기
방법 선착순 전화접수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6

심폐소생술 교육

기간 매주 월, 금 오전 10~11시 20분, 오후 2시~3시 20분 / 8월 27일(토) 오전 10시~11시 20분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소 교육실
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방법 선착순 전화접수
감사 산본보건지소 1급 응급 구조사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61, 8978
* 교육인원 5명 미만시 취소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안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 및 장례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 03367
홈페이지 www.keiti.re.kr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 relief@keiti.re.kr